

‘외국인 카드’로 ‘틀’ 깨고 ‘판’을 바꾼다

KIA, 외국인 구성의 핵심은 ‘보완’ 아닌 ‘재설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이번 외국인 야수 구성은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재설계’에 가깝다. 내·외야를 아우르는 수비 범위와 공격 역할을 기준으로 전력의 기준점 자체를 다시 설정했다. 특정 포지션을 메우는 접근이 아닌, 팀 구조 전반을 손보는 선택이었다.

올 겨울 KIA의 과제는 분명했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이적 이후 생긴 내

야 공백과 시즌 내내 반복된 타선의 결정력 부족이었다. 내년 시즌 반등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사안이었다.

가장 고민이 깊었던 지점은 유격수였다. 구단은 내부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했고, 그 해법으로 첫 시행되는 아시아쿼터 제도를 택했다.

대부분의 구단이 마운드 보강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KIA는 호주 출신 야수 제리드 데일을 선택했다. 불펜 역시 숙제였지만, 당장 내야의 균형을 바로잡을 자원이 더 시급하다고 본 셈이다.

데일은 특정 포지션에 고정된 수비수가 아니다. 유격수를 포함해 2루와 3루까지 소화할 수 있는 경험과 범위를 갖춘 자원이다.

그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내야 수비 배치와 커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애크터 데일, 한 자리가 아닌 운용 방식의 새로운 변화 시도 카스트로, 콘택트 능력 활용 ‘한 방’보다는 연결·지속력 역점 네일·올리 원투펀치…안정기반 균형있는 중심축 구축 주문

수비 운영의 선택지도 넓어진다. 단순히 한 자리를 채우는 카드가 아니라, 내야 전체의 운용 방식을 바꾸는 축이다.

타선 역시 같은 방향에서 재편이 이뤄졌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카스트로는 콘택트 능력을 바탕으로 타석을 이어가며 공격을 촉진하는 데 강점이 있는 중장거리 자원이다. 지명타자(DH) 최형우의 이탈 이후, 단발성 ‘한 방’ 대체가 아닌 타선의 지속성과 연결력을 보완하려는 선택이었다.

중심 타선에 두고 공격의 흐름을 조율하면서, 수비에서는 포지션 가변성을 통해 라인업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 같은 선택의 배경에는 내부 FA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인한 전력 손실이 자리하고 있다.

KIA는 공수의 핵심 축을 동시에 잃은 상황에서, 외부 FA 시장보다는 외국인 선수 활용 방식에 해법을 찾았다. 특정 자리에 한정된 자원보다, 범위와 역할을 넘나들 수 있는 선수로 전력의 균형을 다시 맞추겠다는 계산이었다.

이 재편 철학은 외국인 투수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KIA는 마운드 재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기준점부터 고정했다. 데일 올리 체제를 유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

선발진과 불펜이 기복을 보인 가운데, 외국인 투수들은 비교적 계산 가능한 이닝과 운영 패턴을 제공했다.

선발 하위 로테이션과 불펜 소모를 함께 관리하며, 마운드 전반의 균형을 먼저 잡겠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번 겨울 외국인 선택은 선수 몇 명의 교체나 아니라, 전력의 정중앙부터 다시 짜려는 재설계였다.

공격에서는 ‘한 방’보다 ‘지속력’을, 수비에서는 ‘안정’보다 ‘확장’을 기준으로 삼은 선택이었다.

KIA는 외국인 선수를 전력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위치에 놓았다. /주홍철 기자

광주은행 배드민턴 진성익·조송현 태극마크

1월6일 진천선수촌 입촌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진성익과 조송현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진성익은 지난 27일 경북 상주실내체육관에서 끝난 2026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 A조에서 11승 4패(승률 73.33%)로 4위를 기록했고, 조송현은 B조에서 9승 6패(승률 60%)로 4위에 자리했다.

이번 선발전에는 총 115명(남자 59명·여자 56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남자복식은 각 조 상위 5위까지 국가대표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선발로 진성익은 생애 첫 국가대표에 승선했으며, 조송현은 2023년 이후 2년 만에 국가대표로 복귀했다.

특히 조송현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요기아카르타에서 열린 ‘2025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챌린지’ 남자일반부 복식에서 진성익과 팀을 이뤄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했던 아쉬움을 털어냈다.

홍지훈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감독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



2026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딴 조송현(왼쪽)과 진성익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제공〉

고 준비도 정말 많이 했다. 믿고 따라와준 선수들에게 고맙고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며 “국가대표가 됐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광주은행을 대표해 아시안게임, 세계대회 올림픽 메달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성익과 조송현은 내년 1월6일 충북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를 준비하며 메달 도전에 나선다. /박희중 기자

박정환, 세계기선전 결승 진출

내년 2월25-27일 왕싱하오와 결승 3번기로 초대 우승 격돌

한국 바둑랭킹 2위 박정환 9단이 세계기선전 초대 우승에 도전한다.

박정환은 지난 29일 열린 제1회 신한은행 세계기선전 4강에서 중국의 당이페이 9단에게 314수 만에 2집 반을 이겼다.

당이페이를 격파하고 결승에 오른 박정환은 중국의 신에 강자 왕싱하오 9단과 우승컵을 다투게 됐다.

이날 오전에 열린 4강에서는 중국의 왕싱하오가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루 9단에게 271수 만에 불계승했다.

이번 대회 32강부터 김지석 9단, 박민규 9단을 꺾은 왕싱하오는 8강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신진서 9단마저 물리치며 대회 최대 파란을 일으켰다.

지난 4월 북해신역배 정상에 오르며 처음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한 왕싱하오는 10월에는 국수산맥배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중국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올랐다.



박정환(오른쪽)과 왕싱하오가 내년 2월 결승 3번기를 치른다. 〈한국기원 제공〉

박정환과 왕싱하오의 결승 3번기는 내년 2월 25-27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다.

올해 출범한 세계기선전 우승 상금은 1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대회 중 가장 많은 4억원이고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연합뉴스

전북 이승우, 2025시즌 ‘K리그1 연봉킹’

외국인 선수 1위는 대구 세징야

4년 만에 전북 현대의 프로축구 K리그1 왕좌 탈환에 힘을 보탠 공격수 이승우가 ‘2025시즌 국내 선수 연봉킹’으로 우뚝 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0일 발표한 ‘2025 K리그1 구단별 연봉 현황 발표’ 결과 이승우는 15억 9천만원으로 국내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선수 ‘연봉킹’이었던 조현우(울

산·14억6천만원)가 3위로 내려가고 울산 수비수 김영권(14억8천만원)이 2위로 올라섰다.

연봉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출전수당, 승리수당, 공격포인트 수당 및 기타 옵션 등)을 더한 실지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고, 수당에는 2025시즌 K리그와 코리아컵,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됐다.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선수는 대구FC의 공격수 세징야(21억원)였고,

FC서울과 결별한 린가드(19억5천만원), 인천 유나이티드의 ‘해결사’ 무고사(15억4천만원), 전북의 골잡이 콤파뇨(13억4천만원)가 뒤를 이었다.

K리그1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3억1천176만 5천원이었다.

국내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2억3천781만8천 원이고, 외국인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8억3천 508만5천원이었다.

구단별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울산이 6억4천350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5억987만2천원, 서울이 4억1천077만5천원 순이었다.

/연합뉴스

외국 베팅사이트 ‘류지현호, WBC 우승 후보 7-8위권’

외국 주요 베팅 사이트들은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을 7-8위권 전력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지현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2026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2026 WBC 조별리그 C조에서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경쟁한다. 조 2위 안에 들면 미국에서 개최되는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윌리엄힐, 벳365, 드래프트킹 등 주요 베팅 사이트들이 지목하는 ‘우승 후보 1순위’는 30일 현재 모두 미국이다.

윌리엄힐은 미국의 우승 배당률을 11/8로 책정했고, 벳365는 22대1, 드래프트킹은 +140으

로 우승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했다.

윌리엄힐의 경우 미국 우승에 1달러를 걸어 적중하면 2.38달러를 받게 된다.

‘우승 후보 2위’도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합류가 예정된 일본으로 의견이 모였다.

일본은 윌리엄힐 11/4, 벳365 4대1, 드래프트킹 +300의 배당률을 보인다.

이어 이 베팅사이트 3곳은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멕시코 순으로 3-6위 예상도 일치했다.

한국은 윌리엄힐(25/1)과 드래프트킹(+3천500)에서 단독 7위, 벳365에서는 41대1로 캐나다와 함께 공동 7위 전력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